중등학교 시설에서의 커뮤니티공간 연구

Towards the Community Space for Secondary School

이 금 진*

Lee, Kum-Jin

Abstract

The opportunity provided for design method and strategy of community space for secondary school through the experience of public library and gallery,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Community space is an important issue in school architecture as it seeks to revive the public area in educational building and to renew the open space as a multi-entertainment space. The latest works of school, however, which are evaluated as well reflected the reality of educational patterns, are still deficient in that communicational elements in school are underdeveloped and inadequate. The cases of this paper, which are grown up as entertainment library and multi-purpose cultural space such as Seattle Public Library, Sendai Mediatech, Tate Modern Gallery, and Kunsthhaus, are suitable to offer the method of the creation of community space for school.

This paper reviews an assessment of its success in community space for school architecture with multi-entertainment-purpose library and cultural space connected open space and concludes with the establishment of design method for future school; extraction of the factors contributing to development of community space in school and proposal of design method; implementation of school renewal with library and gallery plus open space for the creation of identity considering both of study and play.

키워드 : 중등학교, 커뮤니티, 문화, 엔터테인먼트, 도서관, 다목적 문화시설

Keywords : Secondary School, Community, Culture, Entertainment, Library, Multi-purpose Cultural Facilitie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사회, 경제, 문화, 건축, 도시 등의 전반적인 구조 변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등학교의 교육방식과 시설 역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해진 교실에서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하던 이전의 교육방식과는 달리 학생들이 교실을 이동하면서 강의를 듣는 교과교실제 운영체제가 확대되고 있다. 일률적으로 틀에 맞추어진 학교수업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수준별 맞춤형 교과과정에 따라 학생 스스로 수업시간표를 조정하고 학습공간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다이내믹한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있다.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학교시설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교는 정해진 규율 속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성적을 향상시키는 학습장소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경험과 도전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알맞은 시설이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육제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교과교실제 운영체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시설 계획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교생활에서의 문화와 오픈스페이스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과목별 학습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킨 중등학교 계획방안을 모색한다. 학습위주의 교실중심 중등학교 계획방식에서 나아가 일상으로서의 커뮤니티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커뮤니티 인프라를 구축하는 연구과정은 의미있는 논의가 될 것이다.

* 정회원, 인천대 도시건축학부 조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09년도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과교실제 운영체제를 위한 중등학교 커뮤니티공간 계획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먼저 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을 중심으로 공공건축에서의 커뮤니티공간 계획동향을 분석한다. 시애틀도서관(The Seattle Public Library)과 센다이미디어테크(Sendai Mediatech) 등 엔터테인먼트 도서관 및 테이트모던 갤러리(Museum Tate Modern)와 쿤스트하우스(Kunsthaus) 등 다목적 문화시설의 특성을 살펴보고, 중등학교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과교실제 중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공간 디자인 방향을 도출한다. 교과교실제 시행에 맞춰 신도시 주거단지에 계획된 인천해송고, 광주장덕고, 강원애니고 등 우수학교시설로 선정된 중등학교를 분석하고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가능한 시설들을 제안하여, 교과교실제 학습과 연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 계획 방안을 모색한다.

2. 중등학교의 커뮤니티공간

2.1 중등학교 커뮤니티공간의 필요성

수업프로그램에 맞추어 분주하게 이동하는 교과교실 운영체제에서 교실은 더 이상 학생의 유일한 소속공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학습공간이 전문화되면서 학생의 학교생활은 교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교실 이외에서의 학습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신설 중등학교를 살펴보면 다양한 공간변화를 꾀하여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계획되는 추세에 있으면서도 운영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형편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들의 일상에는 교육방침과 운영체제가 변화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창의적 학습을 목표로 삼으면서도 교과서에 얽매인 채 지정된 교과목의 지식을 습득하기에도 급급하여 특정 교과목에 편중된 학습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별활동과 예체능 관련 교과목을 통한 다방면의 교육이 과거보다는 폭넓게 시행되고 있으나 협소한 교사공간과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2.2 중등학교 커뮤니티공간의 활용성

교과과정 프로그램에 따라 발생하는 공강시간과 수업의 학습장소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장소는 도서관과 다목적 문화시설이다. 교과교실 운영체제에서 도서관은 방

과 후 자율학습 용도로 사용되거나 단순히 책을 대출하고 읽는 장소에서 나아가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학교 내 다목적 문화시설 역시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장소가 된다. 이들 도서관과 다목적 문화시설은 일반교실과 동등한 위상에서 학생들이 분야별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주요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아울러 지역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학교이미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공공건축에서의 커뮤니티공간 동향

3.1 엔터테인먼트 도서관

디지털과 미디어센터의 개념이 혼합되면서 일상생활의 연장선상에서 도서관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 최근의 공공도서관의 디자인 경향처럼, 중등학교의 도서관에서도 사회적 문화적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신나게 즐기 위한 엔터테인먼트 도서관으로 계획된 시애틀 도서관은 미디어테크로서 도서관의 변화를 잠재적으로 나타내고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사용목적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¹⁾ 오픈플랜으로 계획된 리딩룸은 열람공간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내정원과 같은 장소로 계획되었고, 산책로를 따라 가듯 공간을 아우르며 휘감기는 경사로로 이어지는 서고는 지루한 서가가 연속되어 지루하고 경직된 서가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다이내믹한 이동동선이 연장된 즐거운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방문자가 도서관 내부를 이동할 때 아티스트의 작품을 감상하도록 아트리움벽 스크린을 계획하는 등 도서관은 정보를 얻고 상호교류하며 즐기는 공간들로 구성되었으며, 작업과 정보교환, 휴식 등 일상에서 활기를 찾는 장소가 되었다.

도서관의 모든 디지털컨텐츠를 소장할 수 있는 미디어

1) 시애틀도서관은 기능적 차이에 대한 공간적 대응방법을 재정립하여 새로운 공간디자인의 가능성을 실험한 작품이다. 렘콜하스(Rem Koolhaas, OMA)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취급하고 책을 읽는 장소에서 벗어나 현대인의 삶의 중심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금진, 문화, 엔터테인먼트, 자연이미지를 통한 학교아이덴티티 구축, 대한건축학회지, 2009

그림 1. 시애틀 도서관 평면 및 서가

그림 2. 센다이 미디어테크 단면 및 열람공간

테크로서의 도서관계획의 가능성을 추구한 센다이 미디어 테크는 미디어의 보관창고로 하나의 칩 속에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연속적이고 유동하는 정보의 동적교환체제로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사용목적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²⁾ 근대도서관에서 중요시되었던 서가와 열람실의 위계와 전형적인 공간과 가구배치 대신, 다양한 형태와 칼라로 디자인된 서가와 열람실에서 자유롭게 책을 보고 영상물을 관람하고 휴식을 취하고 소일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건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의 거대한 공간 내에서 끊임없이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건물 내부공간의 모든 기능이 하나의 글라스박스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변화된다.

특정한 목적성만을 갖는 폐쇄된 장소로 존재해왔던 전통적인 도서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존재하는 시애틀 도서관과 센다이 미디어테크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중등학교의 도서관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락적 요소를 부여한 장소로 계획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과 놀이의 경계를 허물고 학습공간에 대한 목적성을 역전시켜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성장하는 도서관은 더 이상 교과서와 방과 후 자율학습이 연상되는 답답한 공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공부하고 휴식을 취하고 친구를 만나는 정원과 같은 학교생활 일상의 공간이 될 수 있다.

2) 이토토요(Ito Toyo)는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상호 교류하며 즐기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3.2 다목적 문화시설

미술관, 공연장, 아트센터 등의 문화시설이 교육, 체험,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복합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학교시설에서도 문화적 교류와 협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시스템으로서의 다목적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런던 테이트모던 갤러리는 서더크(Southwark)지역의 벅크사이드 발전소(Bankside Power Station)를 도심 속 현대미술의 상징으로 변모시킨 건축물이다.³⁾ 정형적 형태로 규칙적인 층 구분을 갖도록 배치된 전시공간은 엔터테인먼트요소를 결합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일체화되었다. 감각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동적인 공간으로 존재하는 터빈 홀은 야외전시공간에서만 가능하였던 조형작품을 내부로 끌어들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장소로, 시기별로 변화하는 대형전시와 설치물, 이벤트, 다양한 주제를 갖는 조형적 놀이시설 등이 기획될 수 있는 역동적 공간으로 극대화되었다.

슬로스베르크를 비롯한 도심 어디에서나 조망할 수 있는 그라츠의 쿤스트하우스는 공공예술분야 프로그램이 전시기획에 접목되면서 도시 전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화이벤트를 활성화시키는 문화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⁴⁾ 갤러리 내부는 상설전시공간 없이 신진작가들의 현대미술을 실험할 수 있는 오픈플랜으로 구성되었으며, 무주공간으로

그림 3. 테이트모던 갤러리 평면 및 터빈홀 이벤트 기획전시

- 3) 헤르조그 뮈랑(Herzog & De Meuron)은 도크와 공장지대로 발전하여왔던 서더크지역의 상징적 건축물인 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템즈강 주변을 수변오픈스페이스로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발전소의 외관과 내부공간을 최대한 보존하여 역사적 장소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발전소의 터빈이 있던 공간을 다이내믹한 전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금진, 운동성 개념을 통해 본 수변문화공간 디자인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9
- 4) 피터쿡(Peter Cook)은 그라츠(Graz)가 유럽의 문화수도로 선정되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무어(Mur)강 서쪽지역이 아트존으로 설정됨에 따라 무어강 지역을 문화공간으로 디자인하여 오랜기간 단절되어 왔던 동서지역의 소통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적 교류를 통한 도시통합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림 4. 쿤스트하우스 단면 및 오픈플랜 전시공간

비워진 전시장에 기획되는 예술품들은 건축물의 일부가 되는 건축적 이벤트로서의 효과를 담는 설치물이 된다. 전시작품들을 배치하는 방법에 따라 건축물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며 관람자의 체험공간으로 변화된다. 구도심의 모습을 반영하여 비추는 기하학적인 곡선과 축수형태로 디자인된 외관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도시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음향디자인이 더하여져서 지역 전체로 확장되는 소리를 부여함으로써 시각적 청각적 교감과 함께 어울려지도록 계획되었다.

테이트모던 갤러리 및 쿤스트하우스처럼 교과교실제 운영체제에서 교실과 함께 호흡하는 다목적 문화시설이 학교 내에 존재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교육환경으로 진일보하게 된다. 학교 내 다목적 문화시설을 공강시간과 특별활동 및 수업과정에도 연계하여 학교생활의 일상을 공유하는 장소로 제공한다면 커뮤니티와 문화, 사회적 학습을 위한 창의적 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운영정책의 변화된 틀 속에서 커뮤니티활동을 통해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학교 내부로 끌어들인다면 교육활성화 및 사회인프라의 다양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3.3 중등학교 커뮤니티공간 계획방향

일상에서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존재하는 이들 도서관과 문화시설은 도시와 건축의 경계를 허물고 공공공간에 대한 목적성을 역전시킴으로써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한다. 근대의 위계성을 배제하고 전통적인 도서관과 문화시설의 고유 기능에 공공성과 오락성을 부가한 새로운 멀티플렉스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등학교의 도서관과 문화시설에서 역시 학교 도서관 또는 학교 문화시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적 공간적 접근에 있어서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장소로, 교실에서의 학습에 연계된 독서, 정보교환, 작품전시, 교류, 휴식 등 학교생활의 일상 속에서 활기를 찾는 커뮤니티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새로운 교육과 문화의 모티브로 존재하는 도서관과

다목적 문화시설은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창조할 수 있다.

4. 중등학교 커뮤니티공간 계획방안

4.1 분석대상 중등학교 현황

인천해송고, 광주장덕고, 강원애니고 등 본 연구의 분석대상 중등학교들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시설로,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친환경학교로 조성되었다. 학교별 교사동과 실습동 주요시설 및 연계 오픈스페이스 현황은 (표 1)과 같다.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의 대학가와 연구단지, 공동주택단지, 녹지공원부지 등에 둘러싸인 인천해송고는 지역주민의 교류를 위한 문화쉼터를 마련하고 인근의 미추홀공원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해 학교시설의 일부를 공원화하는 등 커뮤니티 녹색문화공간으로서의 학교시설로 계획되었다.⁵⁾ 생태·문화도시 지향의 21세기 도시개발이라는 모토로 진행된 광주 수완지구의 광주장덕고는 풍영정천과 새로운 주거단지 경계에 위치하여 자연을 인입시키는 배치방식과 외부공간 계획에서 진일보한 디자인으로 계획되었다.⁶⁾ 영상산업을 주도할 기획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전문기술 영재 육성,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수업 방법의 유연화를 통한 특성화 인력 양성, 지역공동체 문화 창달 등을 목표로 계획된 춘천시 강원애니고는 숲과 녹지에 둘러싸인 입지조건을 갖추고 애니메이션박물관과 인형극장에도 연결되어 지역산업수요와 문화콘텐츠분야에 직결되는 특수목적고로 계획되었다.⁷⁾

4.2 분석대상 중등학교의 커뮤니티공간 이용 현황

인천해송고, 광주장덕고, 강원애니고의 교사동과 실습동의 주요시설 중 도서와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공간으로의 활용 가능한 시설과 이용현황은 (표 2)와 같다. 실내공간으로는 로비, 휴게홀, 복도, 홈페이지, 브리지, 데크, 도서실 등이 있으며, 외부공간으로는 건물 사이의 중정과 필로티, 옥상정원 등이 있다. 실내공용공간 중에는 로비홀과 휴게홀의 이용 가능성이 가장 크고 학교에 따라서는 계획

5) 이금진, [특집] 우수학교시설 사례, 인천해송고등학교,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011

6) 정주성, [특집] 우수학교시설 사례, 광주장덕고등학교,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009

7) 양관목, [특집] 우수학교시설 사례, 강원애니고등학교,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011

표 1. 학교별 교사동과 실습동 주요시설 및 연계 오픈스페이스 현황

구분	인천해송고	광주장덕고	강원애니고
계획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동과 다목적동으로 구성, 교사동은 3개의 교과교실동과 이를 연결하는 특별교실동으로 분리 -교사동 사이에 미추홀정원과 야외학습장 등 중정마당 계획, 휴식과 학습 공간으로 활용 -중정에 연계된 전시홀과 도서관, 복도에 연계된 휴게홀과 실내정원, 옥상정원 계획, 자연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공원 같은 학교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동과 급식강당동으로 구성, 교사동은 3개의 교과교실동과 1개의 특별교실동으로 분리 -교사동과 급식강당동 사이에 소규모 테마마당 계획, 필로티와 브리지를 통해 연계 -학교와 자연, 문화공간이 통합된 생활친화적 장소로 계획 -개방감 확보 및 바람의 통로 형성, 열린 조망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목적교로 교사동, 실습동, 다목적동, 기숙사동으로 구성 -학생과 교사 간 편의제공 및 커뮤니티 증대를 위해 교사동과 실습동에 중정과 연계된 휴게공간 계획, 휴식과 교류를 통한 창작활동에 시너지 효과로 작용 -중정을 중심으로 배치, 각기 다른 교육기능들을 연속성 있는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완성
교사동	학습 시설	일반교실, 교과전용교실, 사회도덕실, 물리실, 기술실, 가정실, 국어실, 컴퓨터실, 화학실, 영어실, 미술실, 음악실, 어학실, 재량특활실, 도서관	보통교실, 교과전용교실, 과학실, 음악실, 어학실, 시청각실, 기술/가사실습실, 미술실, 사회교과실, 컴퓨터실, 서고
	공용 시설	홈베이스, 로비홀, 휴게홀, 파우더룸, 실내정원, 목재데크, 데크, 옥상정원	홈베이스, 휴게실
실습동	실습 시설	-	영상지사실, 영상기획실습실, 영상스튜디오실, 편집실습실, 방송스튜디오실, 방송기획실습실, 송편집실습실, 컴퓨터그래픽실, 3D 애니메이션실, 사운드제작실
	공용 시설	-	전시홀, 전시복도, 휴게홀
외부공간	생태공원, 야외학습장, 미추홀정원, 쉼터, 진입마당, 열린마당, 필로티	수생생태원, 중정, 마당, 가로수길, 필로티	중정, 휴게마당, 옥상정원
배치

표 2. 학교별 커뮤니티공간 활용 가능 시설과 이용현황

구분	인천해송고	광주장덕고	강원애니고
교사동 실습동	도서관, 로비홀, 휴게홀, 파우더룸, 실내정원, 목재데크	도서관, 로비홀, 복도, 브리지	전시홀, 로비홀, 휴게홀, 데크, 전시복도, 브리지, 옥상정원
외부공간	야외학습장, 미추홀정원, 필로티	중정, 필로티	중정, 휴게마당
이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린광장에서 필로티에 이르는 부출입구 로비에 전시홀 계획: 계획의도와는 달리 빈 공간으로 남겨져 문화예술 감상과 체험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함 -미추홀정원과 생태공원으로 둘러싸여 독립된 영역으로 형성된 도서관: 자연의 녹지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질적인 오픈스페이스와의 연계이용이 부족하고 대부분 수업의 연장시설로 활용 -홈베이스 교실클러스터 사이에 휴게홀과 파우더룸 계획: 층별 복도와 코너에 연결되어 많은 면적을 제공하였으나 원탁과 소파 등 가구가 배치되어 휴식공간으로만 활용 -복도와 계단 사이에 실내정원 계획: 실내 녹색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함 -상층부의 목재데크에 학습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존 계획: 실내 휴게홀과 같이 휴게기능으로만 사용 -3개의 교사동에 의해 형성된 중정은 야외 학습장과 미추홀정원으로 계획: 로비홀과 도서관 연계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로 분리된 교사동 건물 내 다양한 공용공간 확보: 건물의 기능에 따라 여러 개의 로비와 복도 등 건물 내 공용공간을 특화시킬 수 있으나 본래의 기능에만 충실하고 휴식과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장소로 제공하지는 못함 -여러 방향의 교사동 연결 브리지: 교사동 건물을 연계하는 통로공간이 펼쳐져 있으나 각 건물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교사동 사이의 중정과 필로티 공간: 격자형 교사동건물 사이에 위치한 여러 개의 중정과 교사동 저층의 필로티공간을 휴식공간으로만 사용함 -교사동과 급식강당동 사이에 소규모 테마마당 계획: 학습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장소로 부각되지는 않음. 건물 로비와 직접 연결되지만 연계 활용성이 낮음 -수생생태원과 가로수길 조성: 중정과 필로티, 여러 개의 건물군들 사이에 자연친화적 공간을 제공하였으나 일상적 공간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동과 실습동 사이의 중정에 인접한 로비전시: 다양한 학습과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나 활용되지는 못함 -실습동 복도를 작품전시공간으로 이용: 영상실습실 앞 복도 등을 수업과 연계된 전시공간 활용. 실습실 기능별로 연계된 공용공간 이용성이 확대되지는 않음 -문화콘텐츠 전문인 양성학교로서의 실습동 계획: 교사동과 분리된 실습동 전체 및 주변 외부공간을 연계하여 문화공간화 하지 못하고 특화공간 부족함 -교사동과 실습동 사이의 연결 브리지: 중정과 학교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이지만 통로공간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함 -실습동과 교사동 사이의 중정: 로비전시공간과 두 개동을 연결하는 브리지로 둘러싸여 있으나 이용 프로그램 미흡. 휴게공간으로만 사용함 -브리지 진입계단 및 데크: 이동동선으로만 이용, 브리지 내부통로 및 중정 뒷마당과 연계한 외부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함

단계에서부터 로비에 전시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인 활용도는 저조한 편이다. 교내 특화공간으로서 테마존으로 계획된 데크와 복도는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는 정도이며, 교사동을 실내외에서 연결하는 브리지와 필로티 공간은 본래의 기능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도서관 역시 학습공간으로서의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한 채 특화된 장소로 제공되지는 않는다. 정원과 마당, 생태공원, 야외학습장 등으로 계획된 중정은 학교마다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나, 실내공용공간과의 연계된 오픈스페이스로서의 역할은 미미하다.

4.3 중등학교 커뮤니티공간 계획방안

(1) 도서관계획 및 활용방안

1) 교실과 연계된 공용공간과 휴게공간

교과교실제가 중등학교 교육운영체제로 자리잡게 되면서 중등학교에서는 학습과 공존하는 커뮤니티공간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아름다운 도서관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계획한 서울경복여고 도서관 및 전주양지중 디지털도서관 같이, 학교를 구성하는 형식적인 장소로 존재하여왔던 도서관을 독서, 정보교환, 휴식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다.⁸⁾ 입시준비를 위한 독립된 칸막이 책상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었던 기존의 정형적인 열람실 책상배치에 변화를 주어 융통성 있게 가구를 배치하고 서고와 열람공간을 분리하지 않은 자유로운 열린공간을 계획한다면, 학습과 엔터테인먼트가 공존하는 미디어센터 및 디지털도서관으로 활용 가능하다.

중등학교의 도서관은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만 계획되는 것은 아니다. 휴게공간을 도서관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순한 휴게공간으로 사용되는 복도의 알코브 공간을 이벤트를 포함한 열람공간으로 전환하여 재구성하고 다목적동 등 교사동 이외의 커뮤니티공간과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자칫 비워진 공간으로 남게 될 우려가 있는 공간들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2) 도서관 주변의 오픈스페이스

특수교실에 속하는 중등학교의 도서관은 교사의 외곽에 계획되어 일반교실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둡고 활용도가 저조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점차 학교를 상징

8)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의논하고 학습할 수 있는 대면배치와, 접이식 유리도어 너머로 전개되는 외부 중정을 바라보며 독서 중에 쌓인 눈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윤남희 외, 도서관간의 재건축 사례,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011

표 3. 기능별 커뮤니티공간 활용

구분	전시공간		야외체험공간	실내외 연계 이벤트공간	
활용공간	실내공용공간	로비홀	외부공간	야외학습장 생태정원	필로티
		복도 알코브 휴게공간		중정	연결통로 브리지
		내부계단		마당 쉼터	외부계단
					지붕층 옥상정원
					데크

그림 5. 전주양지중 디지털도서관 및 서울대청중 도서관의 자유로운 공간구성과 가구배치

그림 6. 다목적 열람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강원애니고 및 인천해송고 교사동 휴게공간

그림 7. 마당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인천해송고 도서관 및 중정과 열람공간을 데크로 연계한 서울경복여고 도서관

하는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교계획 시 오픈스페이스의 비율이 높아지고 실내외 휴식공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도서관을 학교의 중심에 두고 도서관 주변의 오픈스페이스를 열람공간과 연계한 정원으로 활용한다면 자연의 녹지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공간이 제공될 수 있다. 오픈스페이스를 따라 보행동선으로 이어지는 도서관은 내외부 공간이 연계되어 다양한 만남과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는 커뮤니티공간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정과 열람공간을 데크로 직접 연계한 서울경복여고와 같이, 중정과 선큰 등 기존에 확보된 외부공간이 도서관의 테라스와 데크 등에 연계되면 휴식과 활력을 제공하는 거

주공간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 다목적 문화시설 활용방안

1) 교실에 근접한 공용공간

중등학교의 커뮤니티공간은 교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로비, 복도, 계단 등 교사동의 공용공간을 이용하여 마련할 수 있다. 공용공간을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구성한다면 교사동을 진입하는 과정에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독립된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공간은 다채로운 작품을 매개체로 한 참여와 교류의 장소가 된다.

특정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교실제 운영방식이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문화콘텐츠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강원애니고와 같이 실습이 위주가 되는 교육과정에서는 교사동 뿐 아니라 실습동의 로비와 영상실 습실 앞 복도 등이 수업과 연계된 전시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다. 교사동과 실습동 전반에 걸쳐 공용공간을 학생작품 전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면 학습효과가 더욱 효과적이다.

그림 8. 교사동, 실습동, 중정을 연계하는 강원애니고 로비 전시공간

그림 9. 문화공간으로 이용 가능한 강원애니고 실습동 로비와 교사동 사이의 중정

그림 10. 문화공간으로 이용 가능한 인천해송고 로비홀, 복도, 실내정원, 휴게홀, 파우더룸

2) 교사동과 실습동 주변의 오픈스페이스

저층부의 공용공간을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인접한 오픈스페이스에 연계하면 야외체험공간으로서의 전시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인천해송고 및 강원애니고와 같이 로비와 여기에 인접한 야외학습장, 중정, 쉼터, 마당 등의 기능을 확대하여 이벤트공간으로 특화시키고, 인공연못과 하천을 이용하고 그린코리더를 형성하는 등 자연과 연계된 외부공간으로부터의 생태학습공간과의 연속성을 꾀한다면 친환경적 체험공간이 부각될 수 있다. 학교 내 오픈스페이스 계획이 중요해지면서 보행전용의 외부공간들이 다양한 용도로 확보되기는 하지만 운영이 저조한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물 내부의 공용공간에 부합된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1. 다양한 오픈스페이스와 필로티공간, 교사동의 로비, 도서실이 연계된 인천해송고 교사동

그림 12. 학습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연계하는 광주장덕고 교사동 사이의 중정과 필로티

3) 내외부 연계공간 및 보행공간

최근 중등학교에서는 건물들의 연결과 보행공간 확보, 바람통로를 형성 등을 위한 필로티가 보편적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런 건물 사이의 필로티공간을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공용공간과 직접 연결하면 특화된 장소로 조성할 수 있다. 인천해송고 및 광주장덕고와 같이 교사부지 내에 교사동, 다목적동, 도서관 등 여러 건물이 배치된 경우 또는 동일 건물 내에 저층부와 2층 이상 상층부의 기능을 분리하여 조닝한 경우에 교사동의 로비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 오픈스페이스의 보행동선을 끌어 들여 필로티공간을 이벤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저층부의 오픈스페이스 뿐 아니라 데크와 지붕층 등 교실에 근접한 실내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면 문화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학습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지상층의 필로티와 오픈스페이스로부터 시작된 동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상층부로 이어지면서 학습, 문화,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다목적 외부공간이 형성된다.

건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이동공간은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 사이를 연계하는 기능과 함께 내부공간을 외부공간화한 다양한 테마존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이다. 광주장덕고 교사동과 강원애니고 실습동의 연결브리지처럼 건물 사이에 브리지를 계획한 경우에는 이 장소를 이용하여 특화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 사이에 긴밀한 동선체계를 구축하여 건물로 진입하는 접근체계를 변화시키고, 교사동의積極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학습공간 사이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다목적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3. 이벤트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광주장덕고와 인천해송고의 필로티와 중정

그림 14. 외부데크와 휴게홀, 옥상정원, 중정이 상징적으로 이어지는 인천해송고

그림 15. 광주장덕고 교사동과 강원애니고 실습동의 연결브리지

4) 특화프로그램

교실과 동등한 위계의 독립된 문화공간을 계획하고 학습과 연계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아름답게 미래를 만든다는 개념 아래 문화적 측면에서의 학교시설의 개선을 구상하고 회오갤러리 및 전통한지방 쉼터라는 이름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한 양지중학교와 같이, 학교 전체를 문화중심의

표 4. 중등학교 커뮤니티공간 계획방안

구분	커뮤니티공간 계획방안
기능	-교육, 정보, 전시, 체험, 휴식, 엔터테인먼트 복합화 -학습과 연계된 오락성 및 공공성 추구 -도서 및 열람기능의 자율성 확보 -작품감상 및 제작참여를 위한 교류 -학습과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와 커뮤니티공간 연계
프로그램	-사회적·문화적 프로그램 확장 및 복합적 수용 -도서, 열람, 대형전시, 설치물, 실험적 작품, 조형물, 이벤트 기획 활성화 -특화된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중심의 교육환경 -엔터테인먼트 기능과 결합된 미디어센터, 디지털도서관 계획
공간	-시각적, 청각적 상징성 및 감각적, 동적 형태공간 창조 -오픈플랜구조로 기능적·공간적 유연성 추구 -작품전시, 체험, 이벤트, 열람공간을 위한 공용공간 활용 -홈베이스 및 휴게공간과 열람·문화공간 복합화 -브리지, 건물 연결통로, 외부계단 등 내부로 진입하는 접근 체계 다양화, 학습공간 사이에 문화 이벤트공간 배치 -필로티, 지붕층, 옥상정원 연계, 다목적 체험공간 및 생태학습장 이용 -중정, 마당, 선큰, 테라스, 데크를 열람공간과 연계 -자유로운 가구배치 및 가구형태 제작

그림 16. 아름답게 미래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전통적 요소를 접목한 서울양지중 회오갤러리와 전통한지방 컴퓨터

분위기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공용공간의 환경과 조형적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과 색채 등의 다양성을 시도하여 커뮤니티 문화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식당이나 체육관을 포함한 다목적강당과 수업을 위한 특별활동교실을 학교구성원의 기본으로 삼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별 학교별로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전략이 구축되면 다목적 문화공간의 의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애니메이션박물관과 인형극장에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된 강원애니고와 같이 학교 주변의 문화시설을 학습공간과 밀접하게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교과교실제 운영체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중등학교 시설에서의 커뮤니티공간 계획방안을 제안하

고자 하였다.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 새로운 교육제도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학습위주의 교실중심 중등학교 계획방식에서 나아가 일상으로서의 커뮤니티를 추구할 수 있는 중등학교 시설 계획방안을 모색하였다. 공공건축의 커뮤니티공간 계획동향을 분석하고, 중등학교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과교실제 중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공간 디자인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교과교실제 시행에 맞추어 계획된 중등학교를 분석하여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가능한 시설들을 제안하였다. 교실에서의 학습과 연계된 독서와 정보교환, 휴식, 작품전시와 교류 등 커뮤니티공간 계획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교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로비,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을 이용한 도서열람공간과 다목적 문화공간 계획으로는, ①복도의 알코브공간과 상층부의 로비홀 등을 간이 서고가 부가된 열람공간으로 전환, ②교사동을 진입하는 로비를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구성하고 참여와 교류의 장소로 활성화 등이 있다.
- 2) 교사동과 실습동 주변의 오픈스페이스와 보행공간 활용으로는, ①중정과 마당, 선큰 등을 도서실과 연계된 녹지공간으로 확보, ②저층부의 공용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인접한 필로티로 부유된 공간 및 오픈스페이스에 연계한 야외체험공간 계획, 이벤트공간으로 특화, ③생태학습공간과의 연속성을 부각한 친환경적 체험공간 확보 등이 있다.
- 3) 실내공간에 인접한 오픈스페이스 활용으로는, ①도서실 열람공간과 연계된 테라스와 데크 계획, 휴식과 활력을 제공하는 거주공간과 같은 효과, ②내외부를 연결하는 이동공간 브리지와 연결통로를 이용한 특화된 공간으로 활성화, 내부공간을 외부공간화한 다양한 테마존 형성 등이 있다.
- 4) 기능과 프로그램의 재구성으로는, ①도서실을 독서, 정보교환, 휴식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공간으로 구성, 학교생활 일상의 커뮤니티공간으로 계획, ②자유로운 열린공간으로 도서실 내부 공간과 가구 배치, 미디어센터 및 디지털도서관의 가능성 확보, ③특화된 문화프로그램 운영하여 학습과 연계된 문화공간으로서 효율성 확보, 문화중심의 교육환경으로 개선 등이 있다.

참고문헌

1. 김영택,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확대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2008
 2. 류호섭, 지역문화센터로서 학교건축의 다기능복합화, 교육과학기술부 디지털도서관, 2009
 3. 차주영 외, 지역 중심생활공간으로서 학교시설 활용계획에 관한 기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4. 이금진, 문화, 엔터테인먼트, 자연이미지를 통한 학교아이덴티티 구축, 대한건축학회지, 2009
 5. 정주성, [특집]우수학교시설 사례, 광주장덕고등학교,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009
 6. 양관목, [특집] 우수학교시설 사례, 강원애니고등학교,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011
 7. 이금진, [특집] 우수학교시설 사례, 인천해송고등학교,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011
 8. 윤남희 외, 도서관공간의 재구축 사례,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011
 9. 범건축, 포에이건축, 동우 E&C 설계설명서
 10. www.happy-school.or.kr
- * 사진출처: 참고문헌 4-10

접수 2011. 11. 21
1차 심사완료 2012. 01. 12
게재확정 2012. 01. 19